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128호 발행일 : 2005년 5월 22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2005년 교회표어 :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결식아동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 열려 6월 8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과 나눔의 음악회

사랑을 나누어 환경에 미소지을 때
우리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Sop / 현악] [Ten / 여단] [기타 / 성악] [지휘 / 박치용]

[소프라노] [시니어합창단]

주최 : 주님의교회 제1남선교회
후원 : 주님의교회 공회위원회
일시 : 2005년 6월 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주님의교회 대예배실

6월 8일(수)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제1남선교회 주최, 공회위원회 후원으로 서울모테트 합창단(지휘: 박치용 집사)과 소프라노 한나숙, 테너 이단열, 장승호, 소마트리오의 결식아동 돕기 자선 음악회가 열리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30만 명의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 한다. 내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와 함께하는 친구들도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이번 우리교회에서 열리는 자선음악회를 통해 성도들이 입장하면서 기부한 자발적인 성금과 기도로 우리 주변에서 고통 받는 결식아동들이 희망을 찾는 귀한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

세례 입교 교육 진행중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세례입교 교육이 진행중에 있다. 세례입교는 4주간의 교육과 5주째 문답을 거쳐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지고 있다. 행정과 예식에 관한 제반 준비는 정희성 목사가 담당하는 세례사역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번 세례입교 교육은 박의일 목사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4면에 이어서)

4부 전도 예배 다음주일부터 시작돼

전도예배 사역팀은 4부 전도 예배가 드디어 다음주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도예배에 필요한 음향장비와 악기 모니터를 구매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입 완료했고, 어제(21일) 토요일에는 4부 예배 팀장 기획회의를 저녁 7시에 장신대 세계교회 협력센터에서 가졌다. 오늘은 1,2,3 부 설교전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홍보 포스터를 교회에 붙이며 자체 리허설을 가질 예정이다. 구역별로는 4부 예배 초청할 사람의 명단을 받아 중보기도 및 초청대상 인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28일(토)에는 최종 리허설을 가질 예정이다. 29일에 있을 첫번째 전도예배는 예배 도입 영상과 초대 게스트의 찬양공연, 드라마 설교, 기도, 엔딩 뮤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전도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많이 초청하여 참여시키므로 모두가 참여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기대한다.

PTP(학부모, 교사기도회)가 뜨거운 기도로 계속돼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PTP(학부모, 교사기도회)가 이제 10주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PTP 봄 학기가 다섯 번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던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바쁘고 쉽게 시간을 내기 어려운 토요일 오전에 드리는 PTP가 매주 200여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으로 헌신하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간증들이 나누어지고 있다. PTP주요에는 매주마다 은혜 받은 내용들이 간증으로 나누어지고 매달 4째주에는 학교를 안기는 아이들과 함께 온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로 모이고 있다. 특별히 6월 11일과 18일에는 자녀교육세미나로 모이게 되며 마지막예배는 온가족이 함께 하는 찬양예배로 드려지게 된다. 계속되는 흥민기 목사의 믿음의 열조들에게 배우는 자녀교육 강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며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PTP 스케줄

5월 28일

믿음의 열조들에게 배우는 자녀교육(10)
창세기 25:27-34 "가볍게 여긴 축복"

6월 4일

믿음의 열조들에게 배우는 자녀교육(11)
창세기 27:15-20 "야곱의 원함"

6월 11일

자녀교육세미나 I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

6월 18일

자녀교육세미나 II "바른 훈계가 있는 가정"

6월 25일

PTP 봄 학기 마지막예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찬양예배
말씀 : 믿음의 열조들에게 배우는 자녀교육(12)
창세기 32:24-30 "하나님과의 씨름"

제3회무지개축제, 교회안의 큰 잔치로 정착해

주님 안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되어

지난 주일은 제3회 무지개축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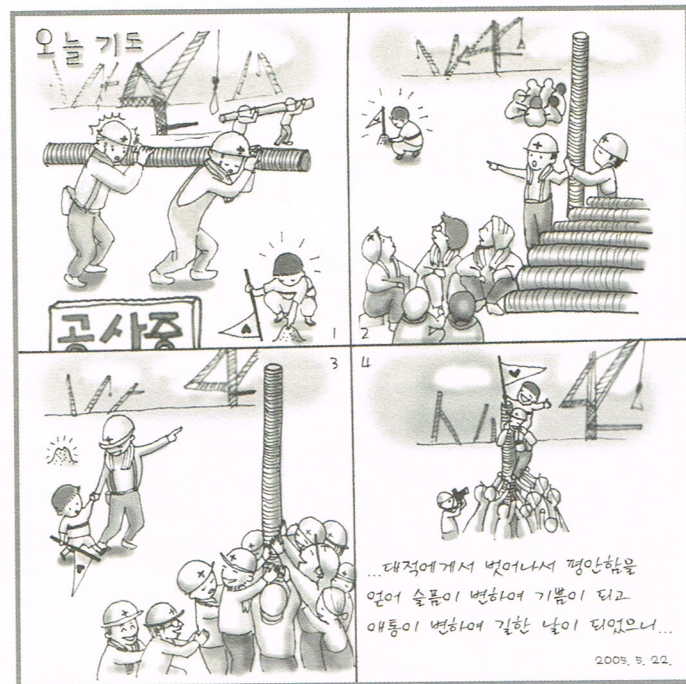
이 축제를 위해 최상용 장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무지개축제 준비위원회는 매주 주일 오후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머리를 맞대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한 달 넘게 가져왔다.

이날 주일예배는 7시 30분 1부예배와 9시 30분 연합예배로 2번 드러졌고, 연합예배 이후 10시 30분부터 무지개축제 2부시간이 시작되었다.

무지개 축제 때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찾아 가세요

지난 주일 무지개 축제때 '꿈과 이상을 보는 완두콩 Family' 라는 테마로 열린 무지개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오늘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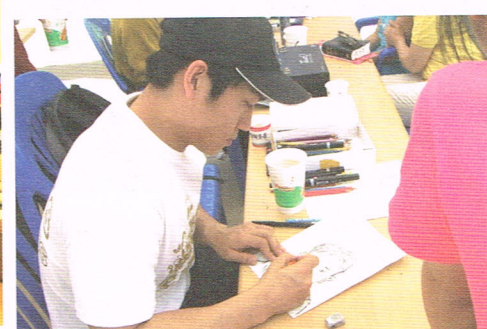
본인이 찍은 사진을 확인하여 찾아가면 된다. 사진을 많은 인원이 찍어 사진이 뒤섞일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것만 가져가길 당부 드린다. 축제때 수고한 스텝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한가족의 장

2부는 각 교구별로 음식코너를 맡아 준비한 먹거리마당과 11종류의 에어 바운스를 이용한 놀이마당, 그리고 청년부와 다른 성도들이 참여한 축제마당으로 진행되면서 구역별 식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2부에 관련된 시설들은 주로 토요일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여 기본적으로 운동장에 설치해 놓았고, 당일 연합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미흡한 부분들을 직원과 스텝으로 수고한 성도들이 준비하여 연합예배 후에 성도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날 날씨도 매우 화창하고 모든 것이 축제를 치루기에 최고로 적절한 환경과 여건이었다. 먹거리마당에서는 교구별로 권사와 집사들이 총 15종류의 먹거리 시장을 열었는데, 가격은 500-2000원 상당으로 모두 매우 저렴하게 판매했다.

또한, 청년 스텝들과 안전 요원들, 놀이 및 축제마당을 담당한 성도들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함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안전한 상태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다소 태양열이 따가울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놀이기구 주변 및 축제마당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했다. 특별히 축제마당에는 무지개 사진관과 풍선 아트, 비즈 공예, 가족 캐리커처, 비눗방울 만들기와 같은 신나고 재밌는 코너들이 많아 그곳을 찾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이 줄을 이었다. 구역별 식사는 운동장에서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한 성도들이 많았고 자리가 협소하여 교회 주변에서 흩어져 식사하는 구역들도 많았다.



한몸의 장



3부는 예정보다 다소 늦은 오후 1시가 약간 넘은 시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운동장 정중앙에서 백색의 한마음팀과 적색의 한가족팀으로 나뉘어 전교인 운동회를 가졌다.

운동회에 들어가기 전, 무지개축제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한 최상용 장로의 개회선언이 있었고, 김영아 권사의 인도로 스트레칭 시간을 먼저 가졌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다음, 한마음팀은 1,5,6교구가족, 중등부1/2, 고등부1/2, 청년부1/2 교우로 구성되었고, 한가족팀은 2,3,4,7교구, 중등부1/2, 고등

부1/2, 청년부1/2 교우로 구성되었다.

이날 사회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재욱 전도사가 맡아 진행했다.

게임은 가장 처음에 단체 공굴리기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복음 전도 릴레이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게임들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예년에 비해 올해 3부는 더욱더 여러가지 면에서 잘 보장되고 준비한 결과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게임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아주 적극적이었고,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게임을 즐겼다.



한마음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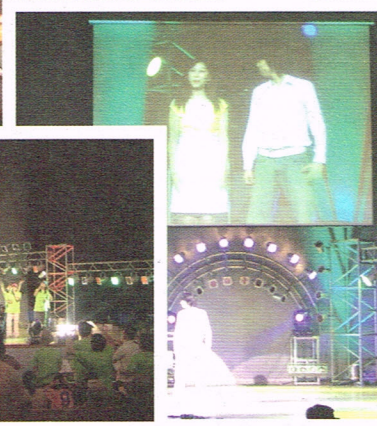
4부 한마음의 장은 3부 시간이 다소 길어진 관계로 오후 4시가 약간 넘은 시간에 성도들이 대예배실로 들어왔다.

우리교회 안에 있는 숨은 재능들과 끼를 발산하는 유쾌한 시간이었다. 4부의 시작은 청년부 워십팀이 담당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진 다음, 중등부의 워십으로 4부의 본격적인 막을 열었다.

이후 열화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 속에 초등부 작은 제자들에서부터 양코르 합창단, 청년부 워십, 웃찾사를 모방한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재미있고 흥겨운 순서들이 계속 이어졌다.

작년에 볼 수 있었던 교역자들의 깜짝 순서가 올해는 없어 기뻐했던 성도들에게는 다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그러나 전체

흐름이 깔끔하면서도 물흐르듯이 잘 진행되었다. 특히 4부 순서 사회를 맡은 이강혁 청년부 전도사와 한하나 자매가 매끄럽게 순서를 잘 진행해 4부를 더욱 빛내 주었다. 청년부 워십팀의 인도로 4부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김완중 장로의 사회로 무지개축제를 매듭짓는 시상식이 있었다. 개인, 구역, 단체별 시상이 있었다. 시상식 뒤에는 담임목사의 감사 인사와 축도로 무지개 축제의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다.



두 번째 30CUP WORSHIP SERVICE가 열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초대 강사인 이용수 교수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실패와 승리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30대 미/기혼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공감과 감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시 : 오늘 오후 5시30분
장소 : 지하 중예배실
강사 : 이용수 교수 (세종대, 현 KBS 축구 해설 위원, 주님의교회 집사)
* 탁아방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5여선교회 월례회



5여선교회는 월례회를 11일 수요일 5층 청년부실에서 가졌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므로 세상 속에서 피곤했던 회원들의 마음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회원들은 사 57:14 ~ 21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누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5여선교회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교회의 교역자들과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였다. 월례회를 마친 후 '한국 현대 조각의 선구자, 김종영'을 보러 덕수궁 미술관으로 향했다.

오랜 사색과 통찰을 통해 자연의 본질을 추구한 작가의 귀한 작품들을 만났다. 높은 정신성이 스민 작품들을 보며 회원들은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 5여선교회는 한달에 한번씩 정신지체아를 위한 시설인 '살림의 집'을 돕는 사역도 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18일)에도 회원들이 그곳을 방문하여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돌아왔다. 5여선교회에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세례 입교 교육 진행중

무지개 축제 전주(8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이번 주일에 두 번째

시간을 갖는다. 현재는 20여명이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세례 입교 예식은 6월 15일(수) 7시 30분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있을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소식

지난 토요일(14일), 방과후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치르느라 수고한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단체영화관람을 했다. '킹덤 오브 헤븐'이란 영화로 십자군전쟁과 실제로 존재했던 한 영웅의 삶을 픽션을 통해 재현한 것이다. 영화관람 후 몇몇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청소년 찬양축제예배를 위해 교회로 향했다. 토요일 방과후학교를 섬기고 있는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6월 6일 평택 어와나 게임즈에 참석해

42명의 어와나 단원들과 10명의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핸드북 완성을 받은 단원들이 나오면서 시상 시간의 시상 내용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6일에는 주님의교회 어와나 클럽 볼티 1반에서 15명의 단원들이 평택에서 개최되는 어와나 게임즈에 출전한다. 2학년을 위주로 출전하는 이번 어와나 게임즈는 처음 출전하는 시합으로 이를 계기로 단원들과 교사들이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되고, 페어플레이를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을 알아 가는 시간이 되도록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제 21일(토)에는 볼티 1반과 2반이 오후 3시에 운동장에서 어와나 클럽을 합반하여 시간을 가졌다. 12미터 정규 게임 트랙 위에서 약 100명의 단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와나 클럽의 단원들 한 명 한 명은 우리교회의 미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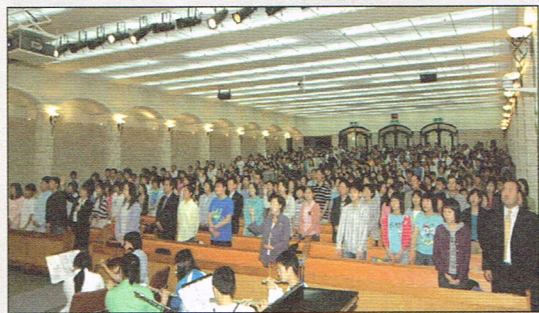
신부 대기실 아름답게 새 단장해

거의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교회에는 결혼식이 있다. 주로 중예배실을 결혼식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예배실에 있는 신부 대기실이 이번에 결혼예식팀 팀장인 한영미 권사와 팀원인 윤숙 집사, 현옥희 집사, 그 외에 김선녀 집사 등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섬김의 봉사를 통해 아름답게 새 단장했다. 그 동안 신부대기실 단장이 미흡하여 사용하는 혼주나 결혼예식팀의 마음이 불편했

는데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므로 사용하는 혼주들이 무척이나 만족해하고 있다. 결혼예식팀은 앞으로 더 많은 팀원들과 함께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결혼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드린 중고등부 연합 예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8일 중고등부 연합으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예상인원보다 훨씬 많은 부모님들의 참여로 예배시간이 되자 지하 고등부 예배실을 가득 채우고 성황리에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에 앞서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와 연합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고, 특히 연합 성가대가 참석한 모든 이들과 함께 부르는 아버지의 노래가 감동적이었다. 이후 중, 고등부에서 각 1명씩 부모님께 쓰는 편지를 낭독하였다. 이 시간은 자녀가 부모님께 그동안 마음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그래서 인지 참여한 모든 이들이 공감하였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읽어나갈 때 속속 눈물을 닦는 부모님들이 생겼다. 말씀은 흥민기 목사가 전했다. 간절하면서도 특유의 유머로 약간은 경직된 부모님들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부모와 자녀간의 영적인 관계맺음에 대해 그리고 서로 간 배려와 이해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다. 예배의 후반부에는 케익 절단식과 기도 및 축복의 시간이 있었는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서로를 향해 축복송을 부를 때 부모와 자녀간의 깊은 이해와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별히 고3들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나와 열싸안고 서로를 위한 감사와 기도가 있었다. 우리는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작은 천국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새삼 확인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양육되기를 바라시고 계셨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고,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엿보기를 원하셨다. 이 선상에서 부모와 자녀가 화합하는 연합예배는 그야말로 천국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 사역의 중요한 축인 학부모 사역의 연대를 더 확장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섬기고 가정을 돕는 일을 지속할 것이다. 예배 후에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올해 청소년사역과 여름계획에 대해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 사역을 집중하는 교회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로를 향해 축복송을 부를 때 부모와 자녀간의 깊은 이해와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별히 고3들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나와 열싸안고 서로를 위한 감사와 기도가 있었다. 우리는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작은 천국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새삼 확인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양육되기를 바라시고 계셨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고,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엿보기를 원하셨다. 이 선상에서 부모와 자녀가 화합하는 연합예배는 그야말로 천국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 사역의 중요한 축인 학부모 사역의 연대를 더 확장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섬기고 가정을 돕는 일을 지속할 것이다. 예배 후에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올해 청소년사역과 여름계획에 대해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청소년 사역을 집중하는 교회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